



신한금융그룹, 핸드볼 국가대표팀 후원

신한금융그룹이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민국 핸드볼 국가대표팀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신한금융은 오는 6월부터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포함한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핸드볼 국가대표팀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포즈를 취했다. /신한금융그룹



GS칼텍스, 에너지효율개선 1호 가구 준공

GS칼텍스는 경기도 평택 진위면에서 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민관공동사업 1호 가구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공 현장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왼쪽부터)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과 김성수 GS칼텍스 부사장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민관공동사업 1호 가구 준공식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S칼텍스



KT-선한영향력가게, 아동 급식지원 맞손

KT가 선한영향력가게와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한영향력가게 찾아주기 앱' 개발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왼쪽부터) KT 강남서부NW운용본부장 김영민 상무와 선한영향력가게 오인태 의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KT



레고랜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지원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장(왼쪽)과 이상민 춘세계태권도문화축제조직위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성신여대, '#END Violence' 챌린지 참여

성신여자대학교는 23일 이성근 총장이 양오봉 전북대 총장의 추천을 받아 아동·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END Violence 캠페인' 챌린지에 교수, 학생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왼쪽 네번째)이 성신여대 재학생 및 국제 교수, 국제 학생들과 함께 '#END Violence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성신여대

몰려든 인파에 의료진 구슬땀... 장수사진 촬영 '웃음꽃'

Q 르포
덕적도 의료봉사 현장 가보니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간이면 도착하는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361명(2023년 4월 기준)을 만나기 위해 100여명의 봉사단이 지난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덕적도를 찾았다.

이번 덕적도 의료봉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354-F(인천)지구가 주최하고 인천 지역 5개 병원(연수김안과, 바로병원, 송도외과, 송도한방병원, 인천오라클피부과)의 후원으로 열렸다.

라이온스협회-인천 5개 병원 협력 100여명 봉사단 1박 2일 일정 방문

덕적도가 위치한 덕적면은 1920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3.9%에 달하고, 농사와 어업 등의 종사 비율이 높아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 육지와 덕적도를 오가는 배가 하루에 세 차례 다니고, 그마저도 기상상황이 좋지 않으면 출항에 제한받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꾸준한 치료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료 봉사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의료봉사 현장



장수사진 촬영 전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박태홍 기자

는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봉사장을 찾은 덕적도 보건지소 관계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를 타고 인천까지 나가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마저도 안개가 짙게 깔리면 헬기가 못 떠 해경 측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안과 같이 특정 부위를 진료하는과는 보건지소에서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의료봉사가 뜻깊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짙은 안개를 뚫고 덕적도를 찾은 봉사단과 의료진은 도착하자마자 서포리 해수욕장 뒤에 위치한 덕적도 서포리 게이트볼장에 봉사장을 마련했다. 의료봉사 시작 시간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부터 한눈에 봐도 걸음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새, 한방 진료를 하는 김원중 송도한방병원 진료원장 앞에는 대기 줄이 생겼다. 김 원장은 의료봉사

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어르신들의 머리, 종아리, 팔에 침을 놓았다. 라이온스클럽 회원인 이승연씨는 김 원장 옆에서 환자의 옷을 잡아주고 정성스레 침놓을 자리를 소독하는 실력을 뽐냈다. 이 씨는 전직 간호사였다고 한다.

진료 시작전부터 대기인파 몰려 장수사진 촬영 소식에 멧쟁이 변신

오후엔 안과 진료가 시작되자 한방 진료 못지않은 대기 줄이 생겼다. 어르신들은 시력검사와 굴절도 검사 등을 받고 중앙대학교병원 안과장과 연구소장을 지낸 김재찬 연수김안과 원장의 진료를 받았다. 김재찬 원장은 "전신이 천냥이라고 하면 눈은 구백냥이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모든 정보를 90% 이상이

눈을 받아들인다. 눈을 잘 보면 환자 전신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봉사장 한 편에는 라이온스협회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어르신들은 상대로 '장수 사진'을 찍는 사진관도 준비했다. 소식을 들은 할머니들은 장롱 속 고운 한복을 꺼내 가져오기도 했고 할아버지들은 하의는 작업복을 입은 채로 상의만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권해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인천)지구 지구총재는 이번 의료봉사에 대해 "계절별로 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의료봉사는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이고 실질적으로 삶이 그분들의 고독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덕적도(인천 옹진군)=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현대차 정몽구 재단, 기후난제 해결할 '기업가형 연구자' 육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업무협약 기후기술 연구 패러다임 전환 기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기후난제를 해결할 기업가형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3년간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상혁 국가 녹색기술연구소 소장 외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을 공표했고, 중장기 감축목표(2030 NDC)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왼쪽)과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22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37개 정책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동참하고자 '그린 소사이어티'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25개를 지원·육성한다.

'그린 소사이어티'는 ▲혁신 기후 기술 발굴 ▲기업가형 연구자 육성 ▲기후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융합연구 및 학제간 협력·창업·해외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그린 소사이어티' 프로젝트는 기업가형 연구자 육성에 집중해 그간

기초 과학 분야에 편중됐던 기후기술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이사장은 "기후변화 문제는 전지구가 마주한 시급한 과제인 만큼 보다 고차원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며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그린 소사이어티'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형 연구자를 육성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후변화를 기업이 정신으로 대응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ESC상생포럼, 내일부터 양일간 '동반성장 세미나' 개최

SH 등 100여개 회사 참여

사단법인 ESC상생포럼이 주요 공공기관과 국내 중소기업들 간의 '상생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ESC상생포럼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 위치한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제4회 공공기관 동반성장 담당자초청 상생포럼 제주세미나'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반성장 협력사례 공유를 통한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향 제시'를 위

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수자원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30여 공공기관과, 제이텍위더, 에이블업, 다올, 하이브시스템, 아하 70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100여 회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틀에 걸친 이번 세미나는 ▲미래 물산업 혁신펀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생협력 ▲수소산업의 미래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사례 발표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의 미래(기업 활성화 방안)

에 대한 발표까지 총 6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들 세션을 통해 제주·부산 등 혁신도시 거점지역 공공기관 동반성장 담당자와 민간 중소기업·중견기업들은 우수협력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동반성장 정책추진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수자원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동반성장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윤휘중 기자 yhj@

인사

◆농촌진흥청 ◇과장급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유기농업과장 장철이

부음

▲최영달씨 별세, 최병길(연합뉴스 경남취재본부장)씨 부친상 = 23일 오전 10시19분, 부산 망미성당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10시. (051)755-4501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모친상=2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5일
▲권영출(베드로)씨 별세,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 23일,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 2층 1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여주 남한강공원묘원. (033)744-3970